

# 국제곡물시세 동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제공〉

## ■ 콘벨트지역 수확지연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과 수요부진으로 인해 톤당 110불대까지 하락했던 미국산 옥수수시세가 최근에는 다소 상승기미를 보이며 120 불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미산 옥수수시세의 일시적 강세현상은 수확기로 들어선 미국 콘벨트지역의 기후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콘벨트지역의 수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13일 현재 미국산 옥수수의 수확진전상황을 보면 17개주 평균 수확진전율은 25%로, 지난해의 27%에 비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과거 평균치인 35%에 비하면 크게 뒤지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시세를 강세로 몰아가고 있는 또하나의 주요요인으로 소련을 비롯한 일부 수입국들의 집중적인 구매증가를 들 수 있다. 즉, 대만의 옥수수 구매사절단이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현지 농민단체들과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멕시코가 다량구매를 실시하였다. 특히 소련의 옥수수 구매계약물량은 10월~12월 선적기준이 80만톤가량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약물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동안 바닥세를 유지해오던 운임시황도 상당한 강세를 보여 얼마전까지만 해도 톤당 10불을 밑돌던 미국서해안(PNW)선임이 최근에는 12불대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 동해안(Gulf) 선임도 13불대에서 18불대로 급상승했다.

## ■ 소련 구매물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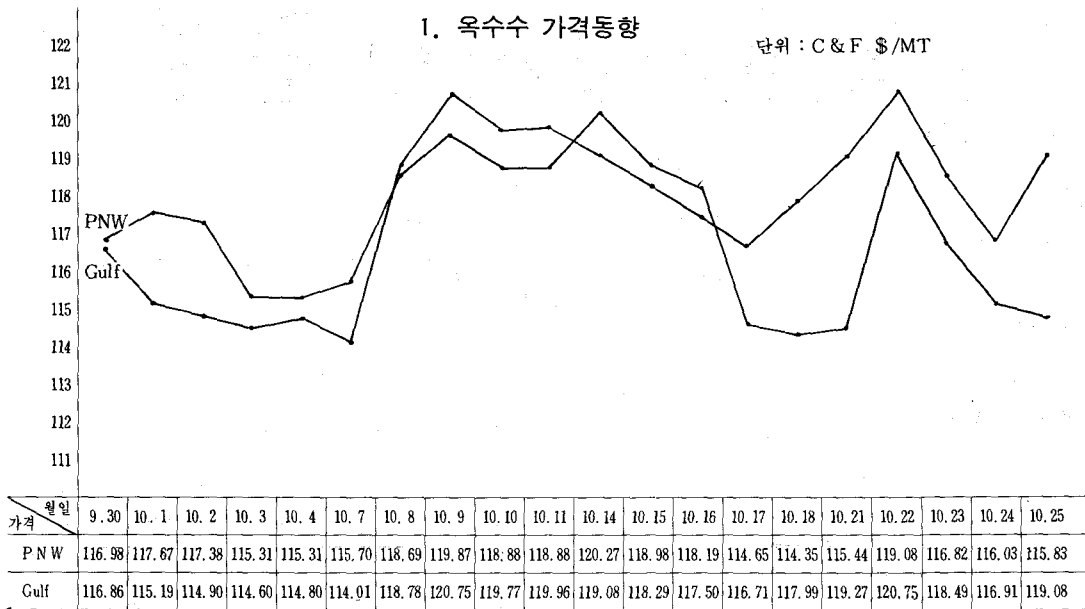
소련의 미국산 옥수수 구매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금년도 소련의 옥수수 생산량이 1천1백만톤으로 지난해의 1천 250만톤에 비해 12%정도 감소되어 수입량을 늘려야만 할 입장이나, 이웃 인접수출국인 중공이 금년도 옥수수 생산에 흉작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여건이 지난해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은 지난해 7,340만톤의 옥수수를 생산하여 약 500만톤가량을 해외에 수출하였으나 금년에는 6,600만톤으로 생산이 감소하였고, 수출물량도 350만톤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지난해 중공은 소련에 육로를 통해 200만톤 가량을 수출하였으나, 금년도의 수확감소로 인해 수출인력이 불확실하며, 가격경쟁력도 미국산 옥수수에 뒤지고 있다. 중공의 옥수수 수확량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중공의 최대 곡창지대인 동북3성이 대규모수해로 인해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길림성의 경우, 지난해 총수확량의 30%에 해당하는 500만톤, 흑룡강성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의 20%인 300만톤이 각각 감소될 전망이며, 요령성 역시 약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미 달러화 지속적 약세

이와같은 이유들말고도 미달러화가치의 하락 역시 미국산 곡물시세를 강세로 몰고가는 주요

# 1. 옥수수 가격동향

단위 : C&F \$/MT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달러화 가치가 하락 되게 되면 과거에 1불당 한화로 900원을 지불 하던 것을 850원만 지불해도 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곡물시세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달러 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한 그만큼 곡물시세가 강세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 미국측 경제분석가들은 앞으로 14~15개월이내에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미국산 옥수수시세가 여러가지 악조건의 개입으로 인해 강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중공 및 태국산 옥수수시세도 상승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 ■ PRC 옥수수의 수출기능 강화

중공은 앞서 언급한대로 동북3성의 비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져 수출이 여의치 못하며 가격 역시 미국산 옥수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 10월말 현재 중공산 옥수수 시세는 C&F 기준 127불로 미국산 옥수수시세보다 10

불이상 높게 가격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공은 최근 과거의 무분별한 수입정책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수출계획 할당제와 함께, 옥수수수출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관리 강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즉 옥수수 수출을 국가계획관리하에 두며, 옥수수수출은 대외경제무역성에서 담당하며, 계획외의 수출은 대외 경제무역성이 심사 승인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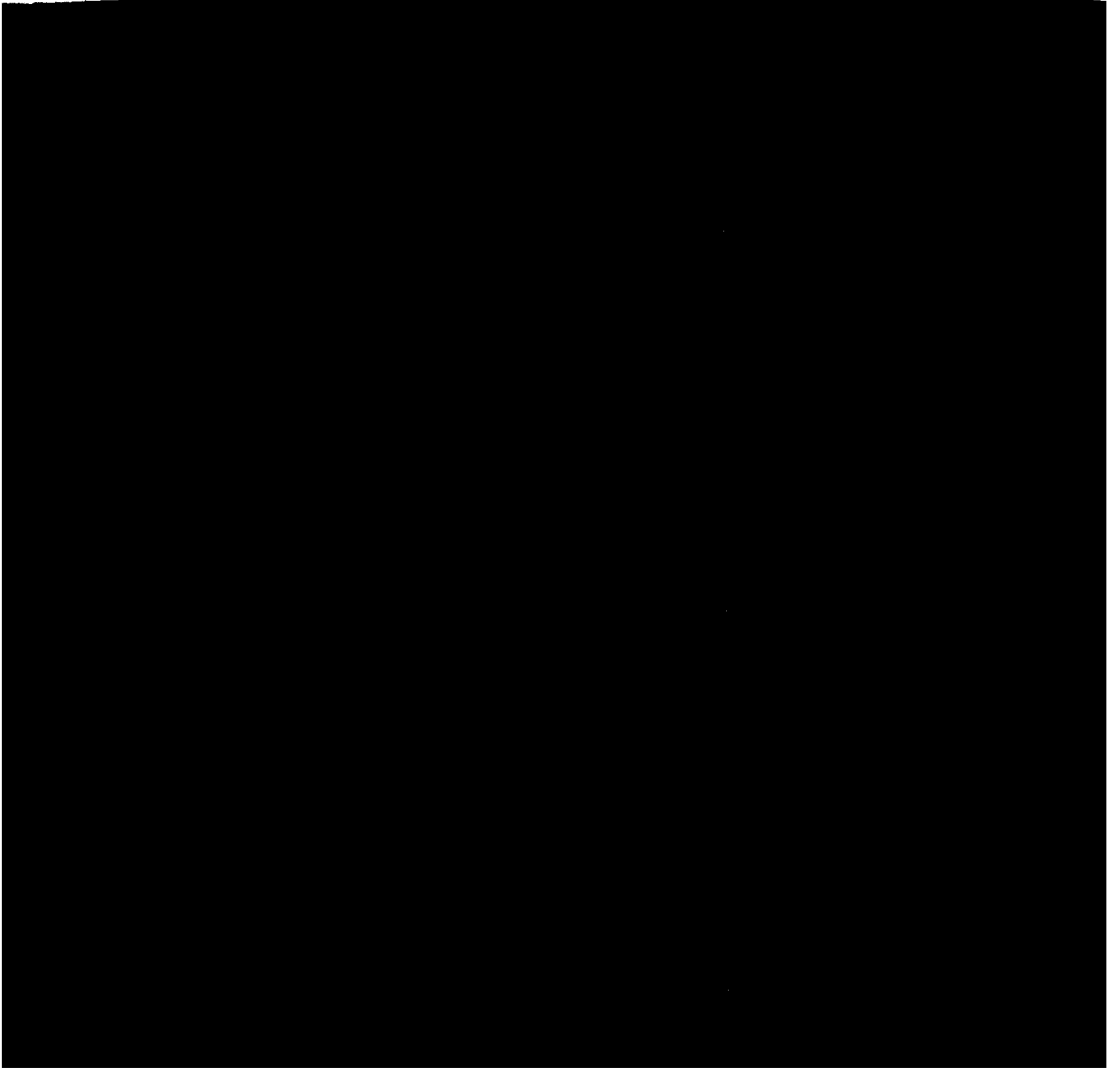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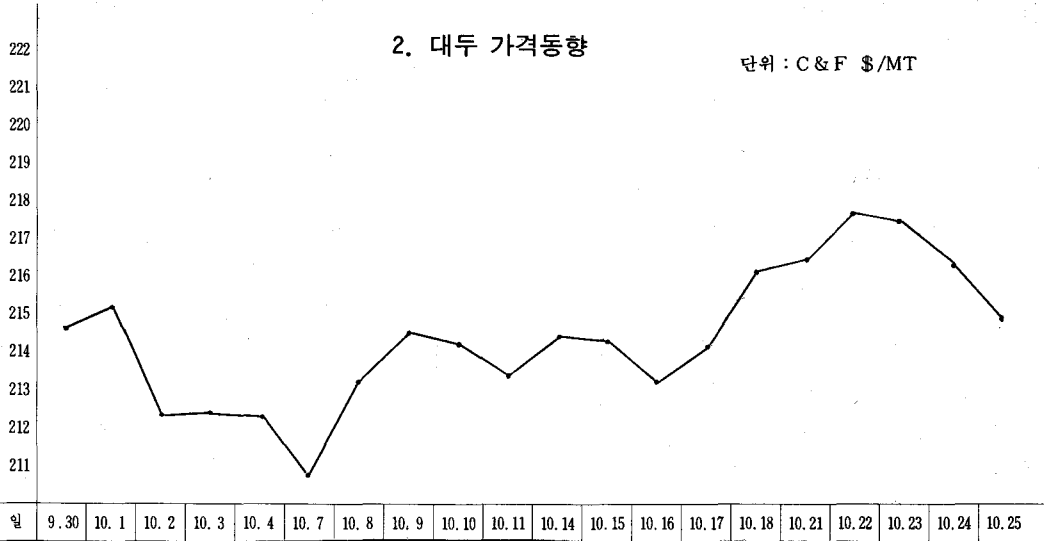
또한 중공산 옥수수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계약관리도 강화하여 수출임무가 부여된 수출기관은 계약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반드시 공급을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출검사도 강화하여 수출품질규격에 합치되지 않고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중공의 옥수수 수출관리강화로 인해 금후 중공의 옥수수 수출은 크게 재정비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 또한 과거와 같이 낮은 가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 Thai Maize 50ppb에서 30ppb로

또한 사상 유례없는 낮은 가격으로 사료업체

## 2. 대두 가격동향

단위 : C&F \$/MT



---

생하게 된다. 그 결과 최근의 태국산 옥수수시세는 A등급기준으로 FOB 방콕가격이 80불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 ONE : ONE Bonus 제도의 변경

옥수수시세가 다소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기타곡물시세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오고 있다. 단, 미국산 대두박시세는 남미의 대두박 재고수준 감소, 달러시세의 약세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맥의 경우 11월선적기준으로 호주산, 캐나다산이 C&F 기준 115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호밀은 107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

고 있다. 수수의 경우는 미국산의 경우 100 불이 넘고, 중공산의 경우는 90불이하의 낮은 가격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값싼 사료용원료로 각광을 받던 태국산 타피오카는 그동안 수출장려정책으로 이용되던 1 : 1 Bonus 정책의 변화로 인해 다소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얼마전까지만 해도 태국 정부에서 태국내 수출상들에게 비EEC 시장에 타피오카 100톤수출시 EC시장의 수출쿼터를 100톤씩 보너스로 주던 것을 최근에는 수출증가로 재고량이 감소하자 1.25 : 1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C&F 65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던 타피오카 하드펠렛가격이 최근에는 70불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